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박진우* · 송현주**

저널리스트 직종과 노동의 양상은 언론학 연구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것은 뉴스 생산 과정, 조직 문화, 그리고 저널리스트 직업의식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 야기한 저널리스트 노동의 새로운 국면에 주목하여, 이를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의 변동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언론사 현직 저널리스트들과의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직업적 자기 인식의 양상 변화를 저널리스트 직업 정체성의 위기와 결부시켜 보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그 세 가지 측면이었다. 첫째,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뉴스 생산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었다. 둘째, 저널리스트 노동 과정의 변화가 전문직주의의 가치에 근거한 오랜 관행과 충돌하면서, 점차 전문직으로서의 자기규정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변화에 대한 대응의 속도 그리고 이에 대한 정서적 동의와 반발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직업의 미래 전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널리스트 직종 내부에서 표출되는 일상적인 노동에 대한 위기의식의 해명을 통해, 이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 뉴스 생산과 저널리스트 노동에 야기하는 새로운 국면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저널리스트 노동, 디지털 컨버전스, 전문직주의, 직업의식, 직업 정체성

1. 들어가며

뉴스 미디어의 위기,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그것은 영리기업으로서 언론사가 처한 재정적 위기, 그리고 생산된 뉴스의 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모두 포괄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김영욱 · 김광호, 2010). 위기의 한복판에는 뉴스의 일차적인 생산자가 있다. 이 연구는 저널리즘의 위기, 언론기업의 위기와는 불가분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동일시될 수도 없는, 저널리스트¹⁾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저널리스트 노동의 변화가 저널리스트의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야기하는 위기의식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 저널리스트는 언론학의 오랜 연구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들이 처한 일상적인 직업 현실에 대한 규명, 직업 현실이 산출된 생산물(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저널리스트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노동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의식, 집합적 정체성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국내에서도 소수의 선구적인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연구위원(jinwoo421@gmail.com)

**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부교수(sometime119@hallym.ac.kr)

1) 이 글에서는 '저널리스트'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사실 '저널리스트', '언론인', '기자'라는 용어들 간에 본질적인 개념적 차이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언론사에 고용되어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 인력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단지 논의 과정에서 언론사에 종사하는 비취재 인력들을 언급할 경우에는 그 점을 명시하였다.

연구들을 제외한다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임영호 외, 2004; 이정훈·김균, 2006; 한선·이오현, 2010).

저널리스트의 존재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현실 속에서 이들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 집단이다. 언론 기업의 급여 관계, 노동 분업,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 구성 등은 뉴스 생산의 임노동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다. 반면 이들은 ‘뉴스’라는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는 일차적 주체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도 요구받는 전문 직종이기도 하다(혹은 그렇다고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존재 방식에 내재된 모순을 고려할 때,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규범인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는 고정된 이념형이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의 지적처럼, 저널리스트 집단의 구체적인 노동 과정과 실천, 그 속에서 형성되는 자의식과 직업적 정체성의 문제로 전문직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Soloski, 1989; Fournier, 1999; 이정훈·김균, 2006; 한선·이오현, 2010).

21세기 저널리즘의 패러다임 변화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영역 전반에 걸친 급격한 재 조직화를 야기한다. 그것은 과거의 종이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 뉴스와 같은 단일 매체의 논리 속에서 구성되었던 저널리즘 실천의 관행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Dahlgren, 1996; Boczkowski, 2004). 뉴스 산업의 메커니즘은 점차 영역과 경계의 소멸을 향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미디어 기업 자체도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 유연화(flexibilization) 및 경영의 전면적인 재 조직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러한 총체적 변화를 추동하는 기술적 기반이면서 동시에 저널리스트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된 노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널리스트들이 겪고 있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을 탐색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저널리스트 전문직주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라 하겠다.

2. 전문직 노동과 직업 의식의 새로운 맥락: 이론적 탐색

저널리스트의 일/노동(work/labour)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뉴스’라는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이 점 자체는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사실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다양한 규모의 언론 기업에 고용되어, 자신에게 특화된 취재 및 업무 영역을 할당받으며, 사주 혹은 편집국 책임자들의 업무 지휘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하지만, 해당 기사의 편집 및 배포의 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한을 별로 가지지는 못한다.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뉴스 생산을 임노동의 차원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저널리스트의 노동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회적 행위자들(social actors)이 직업적 성취(professional accomplishment)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집합적 행동(collective behaviour)의 차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널리스트의 노동은 그들에게 부과된 제약과 규제의 장치로서의 ‘직업 환경(occupational settings)’ 속에서 끊임없이 교섭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Freidson, 2007; Dickinson, 2007, 202쪽). 그 속에서 저널리스트 노동을 둘러싼 ‘변화하지 않은 것’과 ‘변화한 것’(Watson, 2009)의 상호 관계,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들 스스로의 대응 전략에

따른 복합적인 실천의 양상들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널리스트 노동의 임노동적 속성

저널리스트들은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구조화된 일상과 관행, 그리고 표준화된 취재 방식을 통한 직업인으로서의 면모를 훨씬 강하게 가진다. 따라서 저널리스트 노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대체로 단일 거대 조직 속의 ‘샐러리맨’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조직적인 통제의 차원에 상당 부분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Aldridge & Evetts, 2003, 561쪽). 하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 특유의 ‘표준화된 노동 형태’ 역시 개별 편집국 단위를 초월하는 노동 통제(transorganizational control)와 유연 노동의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노동을 둘러싼 구체적인 상호 작용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임노동 관계는 여전히 저널리스트 노동의 근본적인 형태이며,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화와 소유 집중화로 인해 그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뉴스 생산에 있어서의 조직의 슬림화, 뉴스에 대한 취재 현장의 지속적인 영향력 약화, 상업적 가치 위주의 뉴스 생산 및 편집, 그리고 집중된 매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뉴스의 동질화 현상을 지적한다(Schudson, 2003; Gans, 2007). 예컨대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은 해당 모기업, 이른바 ‘네트워크화된 제국(networked empire)’ 내에서의 순환 근무 체제를 통해 전체 뉴스의 전반적인 동질화 현상을 창출한다는 것이다(Louw, 2001).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는 임노동 자체의 강화와 더불어 저널리즘 생산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임노동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보다 고도화된 노동 분업 및 컨버전스라는 차원과도 더욱 밀접히 연결된다. (일단 저널리즘 생산물에 대한 논의를 제쳐 둔다면) 이는 오늘날 뉴스 생산과 노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바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 생산 및 노동의 급격한 유연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Deuze, 2007; 박진우, 2011). 새로운 생산 기술의 도입, 비용 절감 체제의 적용 및 조직의 다운사이징이 진행되고, 경영의 측면에서 그것은 ‘멀티스킬링’의 강화나 협업(팀워크)의 확장과 같은 노동절약적 생산 원리의 도입을 촉진한다. 이는 현재의 저널리스트 노동 과정을 새로운 형태의 직무 로테이션(job rotation) 체제로 밀어 넣는 ‘노동의 컨버전스’이다(Cottle & Ashton, 1999; Ursell, 2001; Dickinson, 2007).²⁾ 통합 뉴스룸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은 공간의 집중화를 통해 고도의 노동 분업 및 노동의 컨버전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³⁾

그러니까 오늘날의 저널리스트들은 과거보다 훨씬 큰 조직 속에서 보다 다양해진 직업적 제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들에게 요구되는 시간적 규범(데드라인의 준수, 기사

2) 방송 및 멀티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전면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방송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사 작성 및 리포팅을 담당하는 기자의 역할 너머에 수많은 분야(출연자, 카메라, 음향, 영상 편집, 뉴스 진행자, 초빙 전문가 등) 종사자들의 노동이 합쳐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과연 기사 개인의 노동의 산물인지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3) 통합 뉴스룸은 공간적 집중화를 기반으로, 뉴스룸 내부의 업무 책임과 범위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노동 분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Esser, 1998; Singer, 2004a, 2004b; Silcock & Keith, 2006; Erdal, 2009).

생산의 리듬 등)은 보다 가속화(acceleration)되지만 뉴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수단, 재정적 수단, 인적 수단 모두에 대한 개인적 통제권 결여의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뉴스룸 내부의 기술적 혁신으로 미리 결정된 기사 생산 및 배급의 형태에 맞추어 뉴스를 ‘찍어내듯’ 생산하는 상황은 더욱 전면화된다. 말하자면 노동의 ‘소외’—즉 저널리스트 노동의 산물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는 그것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변모시킨다(Lemieux, 2010, 28쪽).

2) 전문직주의의 규범과 직업 의식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는 현대 산업사회가 도래한 이래 사회과학의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관련 주장들이 공유했던 전문직의 핵심적 판단 기준은 “장기간의 규정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체계적 지식이나 원칙에 기초”(Wilensky, 1964, 138쪽)해서 전문적인 직업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 이념형은 의사와 법률가 같은 고전적 ‘자유 전문직(liberal profess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전문직 사회학은 전문직주의를 자율성, 전문직 규범, 공익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직업적 특성에 따른 결사체(전문직 협회 또는 노조의 형성, 수입 혹은 임금의 수준, 숙련 구조오랜 도제적 수련의 구조 등), 직종 진입 관문 등을 구체적인 지표로 삼는다(Freidson, 2007).

전문직 사회학이 제기하는 기준을 고려할 때, 저널리스트는 전문직으로 간주되기 힘들거나 혹은 전문직의 이념형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해 있다 하겠다. 저널리스트는 의사나 법률가에 비할 만한 자율성을 확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율성의 기초인 전문성 혹은 ‘비전적 지식(esoteric knowledge)’, 즉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핵심 지식 체계’와 ‘공통의 인지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다. 직업적 윤리 조항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고객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문직에 부합하는 임금 수준, 숙련 구조, 진입 관문 등의 기준들도 이들에게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전문직 규범과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설립된 기자협회나 언론노조 등의 각종 결사체가 제도적인 대안으로 각광 받지만, 그 자체가 저널리스트의 전문직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Aldridge & Evetts, 2003; 임영호 외, 2004; 장하용, 2004).

저널리스트의 전문직주의를 인정하는 주장은 자율성이나 현실적 요건 보다는 전문직 규범과 공익성의 측면을 강조한다.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이를 통한 저널리즘의 공익성 구현이라는 가치가 저널리스트 전문직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집단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이지, 오직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저널리스트는 “외부 세력이나 이념의 영향에서 독립해 나름대로 정착된 취재, 기사작성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임영호, 2007, 243쪽), 특수한 의미의 전문직인 것이다.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은 ‘관행화한 업무 수행’의 구조 속에서 발휘되는 숙련도와 능력, 그러니까 “사실의 정확성, 마감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작업의 속도, 전달의 스타일, 뉴스 가치에 관해 공유된 감각” 정도로 정의된다(위의 글, 236쪽). 결국 저널리스트 집단에게서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전문직 규범이 공익성과 자율성이라는 전문직주의의 기본 전제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자의식도 전문직주의의 취약한 근거를 보강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저널리스트는 스스로를 전문직이라 규정하고 ‘뉴스’라는 사회적 지식의 생산과 배급에서 차지하는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를 특권화 시키며, 뉴스의 생산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과 규범을 부각시킨다⁴⁾. 실제적인 독점적 지식 체계가 부족한 저널리스트 집단의 전문직주의와 직업 정체성 형성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전문직으로서의 자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저널리스트의 직업 정체성은 ‘전문직주의’라는 이름을 통해 결집된 일련의 가치들과 자의식의 담론화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조직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문직의 직업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동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널리스트 개인이 전문직 담론을 내면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유연화된 탈 조직화된 노동 통제 메커니즘의 일종이다(Aldridge & Evetts, 2003, 561쪽). 전문직주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직업적인 신화(professional myth)로서 집단적인 자기 규율(self-discipline)과 자기 통제(self-control)의 기제라는 것이다(Fournier, 1999; Aldridge, 1998; Aldridge & Evetts, 2003). 해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비는, 변화하는 고용 조건에서 회사 측의 직접적인 통제가 약해질수록, 오히려 전문직주의 담론은 더더욱 피고용인들의 자기 인식에 자주 동원된다(Dickinson, 2007, 199쪽).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조직화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직업적 자기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Casey and Allen, 2004). 최근에는 저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데, 많은 경우 이 요구 자체가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전문직 노동: 전문성 개념과 직업 의식의 변화

전문직주의는 앞서 논의한 뉴스 생산의 임노동적 속성과 본질적으로 배치된다. 애초부터 전문직주의와 노동이 결합된 ‘전문직 노동’은 일종의 모순형용(oxymoron)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저널리즘 영역의 전문직주의의 발달은 뉴스 생산의 임노동적 속성을 희석하고 고유한 전문직 규범과 사회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렇기에 뉴스 생산의 임노동적 속성 강화는 전문직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이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하는 전문성(‘전문적 직업 역량’)에 대한 집단적인 자기 인식, 그리고 이로부터 유래하는 직업 의식과 직업 전망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첫째, 앞서 진단한 것처럼 디지털 컨버전스의 과정에서 뉴스 생산의 임노동적 속성이 전면화되고 다차원화되고 있다. 물론 원론적으로 저널리스트의 전문직주의는 이전부터 항상 그 정당성을 위협받았었고, 전문직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저널리스트 집단의 의식적인 노력도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은 노동의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직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의문시한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생산 시스템 변화에 따른 ‘노동의 컨버전스’를 통해 저널리스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문직 역량을 재확립(retool)하고 보다 다양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적인 압력을 느끼게 만든다. 정착된 취재 관행과 기사작성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주의, 그리고 객관성·공정성·자율성을 근간으로 삼는 전문직주의가 과연 변화한 노동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통용될 것인가

4)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저널리스트들이 높은 품질의 저널리즘의 실현, 즉 ‘훌륭한 저널리즘(good journalism)’이 실현되는 것에서 얻는 만족이 자신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서 얻는 만족보다 더 크다고 응답하는 경향은 이 자의식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Beam, 2006; 한국언론재단, 2009).

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곧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은 새로운 전문성의 개념, 그리고 새로운 전문직주의의 가치를 재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분석의 과정에서 살펴보겠지만, 디지털 컨버전스의 환경은 전문직 노동으로서 자신을 규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문성’에 대한 과거의 인식, 이른바 ‘제네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직업 역량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저널리스트 노동이 제기하는 문제가 전문직주의 자체의 재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 정체성이란 물론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다. 그것은 전문직 지식·역량의 지위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제도적 측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우연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입장 등을 포괄한다(Freidson, 2007). 그 중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징적 자원’들 자체가 재구성의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직업적 자율성을 둘러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자의식의 차원이다. 분석 과정에서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기 규제 및 직업적 신화를 동원함으로써 전문직주의의 신화를 유지하려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수동적인—‘체념과 순응’ 혹은 ‘자포자기’의—태도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태도는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인식, 그리고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논의 재료라는 점을 분석 과정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이상의 논의들은 국내의 저널리스트들에게 어느 정도 의식되고 있을까? 저널리스트 전문성과 전문직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만약 전문성과 전문직주의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인가? 또 저널리스트 당사자들은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직업 정체성의 혼란에 대하여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 이 연구가 묻고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로 정식화했다.

첫째는 뉴스 생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현실 진단이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과 멀티미디어 저널리즘의 도래는 뉴스 생산에 중사하는 대다수 저널리스트들의 작업 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 그것은 ‘임노동적 성격의 강화’로 요약된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저널리스트 개개인의 진단, 인식, 그리고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이는 저널리스트 노동의 경험과 자기 인식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예비 작업이라 하겠다.

둘째, 저널리스트 노동의 현장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전문성의 내용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저널리스트 직종의 전문직주의에 야기되는 여러 국면들에 결부시켜 보겠다. 디지털 컨버전스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노동의 현실이 과연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것은 저널리스트 노동의 전문직주의를 어떻게 변모시키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변화의 양상이 저널리스트 직종의 미래 전망에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저널리스트 직종의 직업적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저항과 체념의

양가적 태도, 그리고 그것의 내면화 과정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진다. 저널리스트 노동의 경험은 노동 주체들에게 전문직 저널리스트로서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전문직주의 신화의 내적 통제 메커니즘의 동원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좌절 및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미래 전망과 같은 분열적인 양상을 낳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곧 저널리스트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양상들이라 하겠다.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17명의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설문 문항을 통한 서베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기자들을 매체 유형별로 나뉘보면 중앙일간지 9명, 인터넷신문 3명, 시사주간지 1명, 뉴스통신사 3명, 기타 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 기자들로서, 절반 정도는 여전히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 내의 전략기획 단위나 각종 연구개발 단위의 팀장급 이상 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직책과 종사 매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뉴스 생산 시스템의 혁신과 이에 따른 저널리스트 노동의 변화라는 문제에 대해 국내 언론계 종사자들 가운데 비교적 ‘선진적’인 인식의 보유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평균적’인 저널리스트들의 인식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하겠다. 하지만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별성은 오히려 이슈를 더욱 집약적으로 제시한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인적 사항

구분	소속사	소속 부서	구분	소속사	소속 부서
A	전국 일간지	전략팀 / 팀장	J	인터넷 신문	경영기획실 / 기자
B	"	전략연구소 / 소장	K	"	편집부 / 기자
C	"	동영상뉴스팀 / 팀장	L	"	전략기획팀 / 팀장
D	"	인터넷뉴스팀/ 팀장	M	시사 주간지	온라인기획팀 / 기자
E	"	미디어센터 / 차장	N	기타	미디어센터 / 팀장
F	"	전략팀 / 팀장	O	뉴스 통신사	미디어랩 / 팀장
G	"	영상미디어팀 / 기자	P	"	미디어랩 / 기자
H	"	전략연구소 / 기자	Q	"	편집부 / 기자
I	"	편집부 / 팀장			

사실 저널리스트 노동은 소속 언론사의 매체 유형이나 경영 상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차별화되기 마련이다.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인식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 진행을 위해 릴레이 인터뷰(relay interview)⁵⁾ 방법을 선택하였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때로는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는 주제를 놓고 대상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토론을 벌이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 가능한 몇몇 참가자들의 경우를 제외하면) 인터뷰는 대체로 일대일 심층 면접의 형태로 진행되었

5) 이는 보통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내용상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문이 생길 때 그에 대해 다른 답을 줄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만나면서 주제에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인터뷰는 2010년 9~11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1년 4~5월에 보충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우선 전화 및 이메일 접촉을 통해 연구의 대략적인 범위를 소개하고 간단한 질의 사항들을 미리 보낸 후,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하는 언론사로 방문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회당 평균 2시간 정도였다.

4. 심층 인터뷰 결과

1) 뉴스 생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1) 디지털 컨버전스의 도래와 기술적 혁신에 대한 이중적 인식

우선 디지털 컨버전스의 도래와 뉴스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적 혁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절박함을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최근의 온라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의 도입 등이 뉴스 생산 환경을 큰 틀에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술 혁신에 대한 인식이 (자신을 제외하면) 주변에서는 아직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지체’의 우려를 표명했다.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 재편이나 노동 과정 변화의 많은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인식 태도는 해외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cf. Deuze, 2007, 147쪽). 이러한 절박함과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 조심스러움과 회의적인 태도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추후 기술할 ‘위기 대응 방법’의 차별적인 인식과 관련된다 하겠다.

(J 기자) “현재 국내 언론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인쇄신문 중심적이다. 멀티미디어 뉴스가 여전히 종이신문 시스템의 부록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을 [다른 사람들은] 절박하게 느끼지도 않는다.”

(H 기자) “멀티미디어 디지털 저널리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독자들을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기존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도록 가두고 있다.”

(F 팀장) “올해[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용 앱에서도 종이 신문을 그대로 PDF 파일로 변환시킨 콘텐츠를 제공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그래서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터뷰 대상자의 근무 부서나 직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선 기자들보다는 사내 전략기획 분야 담당자들의 인식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은 ‘종이신문’을 여전히 우선시하는 경영진의 인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국내 언론사들은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

6) 모든 인터뷰는 서두에 대상자의 주요 경력과 현재 자신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 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요 질문사항들을 앞에 놓고 자신의 근무 이력과 상관성이 높은 주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제에 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 그리고 전체 언론을 시야에 둔 전망을 각기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되면 이어질 릴레이 인터뷰를 위해, 토론 주제 가운데 자신과 이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전문가 혹은 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하는 형식의 ‘눈사람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를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에 입각하여, 한 번 생산한 뉴스의 유통 창구를 늘려 나가는 것에만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뉴스룸 혁신 시도 역시 “해당 언론사가 실시간 속보를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한 기대로 추진된다고 혹평했다(F팀장).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자신의 노동과 직업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인식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2) 노동 과정의 변화와 노동 강도의 증가에 대한 우려

이들은 노동 과정의 변화와 노동 강도의 증가에 대해서도 폭넓게 진술했다. 우선 ‘데드라인’ 제도의 사실상의 소멸에 대한 것이다. ‘데드라인(마감 시간)’은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저널리스트 노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노동의 입장에서 이는 정해진 마감시간 내에 정해진 기사 분량을 송고하면 그만이라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디지털 저널리즘은 바로 이 개념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사실상 24시간 내내 뉴스의 생산이 지속되어야 한다. 종이신문 기자에게도 이제는 자신이 쓴 기사를 온라인용으로 혹은 방송 뉴스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그것이 바로 하루 한 차례의 마감에 익숙하던 저널리스트들에게 끊임없는 피드백을 요구하고, 또 기존 매체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구성되는 뉴스까지 동시에 준비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스트레스’의 원천이었다.⁷⁾

그런데, 신문 기자에게 현장 취재 도중 카메라를 들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은 오랜 취재 절차와 관행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cf. Singer, 2004a; Deuze, 2003, 2004; Quandt & Singer, 2009). 이 문제에 대한 해외의 비교적 일관된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태도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다. 한 편으로 현재의 컨버전스의 추세가 반드시 노동 강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종이신문 기자들도 온라인 뉴스 강화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수많은 온라인용 기사 작성에 동원되고 왔다는 것이다.

(K 기자) “꼭 노동 강도가 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텍스트 기자도 하루에 열 쪽지 이상을 해야 한다. 회사의 방식의 차이일 뿐, 방법(method)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강도의 증가는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것은 뉴스룸 혁신과 디지털 생산 체제의 도입이 결국 보수를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업무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기사 작성과 결합되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 기자) “일단 제작 플로우는 기존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즉각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날 오후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영상의 경우는 하루 이상 걸린다. 잘 만들어진 것은 일주일도 걸린다. 기존 매체의 선배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있는데도 일주일씩이나 걸려서 올린다는 것을 이해하질 못한다.

7) 예컨대 다음과 같다. “기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오프라인용 기사를 마감시간에 맞게 써서 올리는 것과 온라인 기사를 미리 써서 올리고 다시 오프라인 기사를 손질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문제다. 최근 온라인용 기사 1건을 미리 송고한 적이 있는데 20매 분량이었다. 이걸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기사 하나를 더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 블로그도 관리 운영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경향노보』, 340호, 2010년 10월 20일, p. 3).

그래서 동영상 기사는 운이 좋으면 대우 받지만, 쓸데없는 짓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걸 평가해 줄 방법이 아무 데도 없다. 페이지 뷰리는 평가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가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어야 한다. 여하튼 생산 플로우는 굉장히 길어졌는데, 생산성이라든지 평가는 아주 낮은 편이다.”

(M 기자) “우리 회사의 어느 후배가 트위터를 하는데, 노동 강도에 대한 얘기인데, 하루 종일 블랙베리를 달고 산다. 어디 가서 컨퍼런스에서 다른 사람 발표하는 중에도 옆에서 트위터로 그거 중계하는 상황이라서,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새벽까지도 그거 하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했다. 굉장히 피로해한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역량이 커지기도 하지만, 너무 피곤해한다.”

2) 전문직 노동의 위기에 대한 인식

(1) 협업 중심의 노동 과정 확산에 대한 반응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저널리스트에게 요구되는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막상 노동 현장에서 뉴스 생산의 큰 틀이 아직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 한시적일 뿐, 과거처럼 기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작업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김사승, 2008). 여기서 새롭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협업 중심의 노동 과정의 확산 및 정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피하기 힘든 뉴스룸 내부의 핵심적인 노동 분업의 양상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 현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저널리스트들의 경험은 그 폭이 대단히 좁으며,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는 저널리스트 노동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인식 지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취재 현장에서 실제로 팀 단위의 각종 협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의 생산을 위한 ‘크로스 미디어 기획’의 일환이었다. ‘크로스 미디어 기획’이란 뉴스의 초기 기획에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이신문, 주·월간지, 사진 슬라이드 쇼, 동영상(다큐멘터리) 등이 통합적으로 준비되는 뉴스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⁸⁾ 협업의 경험은 하나의 완성된 뉴스 콘텐츠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기자 상호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해 주는 조직 차원의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은 이론과는 판이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작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와 마주친다. 예컨대 취재국과 편집국 사이의 관행 차이와 일종의 ‘불평등 관계’, 협업을 위한 과정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합의된 룰의 부재가 두드러졌다.

(F 기자) “멀티미디어 작업 과정에서 여전히 이들 간의 ‘협업’을 말로만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장 취재 인력이 우위에 있다는 사고 방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H 기자) “기자들의 취재문화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취재 기자 중심의 문화, 자체 제작한 정보와

8) 물론 국내의 사례들은 예컨대 <위싱턴 포스트>의 사례처럼 기획 준비에만 2년, 제작인력 약 20명, 그리고 유명 블로거 경력의 ‘혁신 에디터(innovation editor)’ 중심의 대형 탐사보도 기획과 비교할 수준은 못된다(박진우·송현주, 2010).

사진들을 고수하려는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뉴스 콘텐츠의 제공 출처를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콘텐츠의 무엇을 어떻게 뉴스화시킬 것인지는 결국 시니어들이 판단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G 기자) “우리 신문사에서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라는 창간 60주년 기획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는 찾는 기획이다. 기자가 8명, 학계에서 6명, 도합 14~16명이 동원 되었고 편집국 기자로 나도 참여했다. (...) 그러니까 펜, 영상, 사진이 호흡이 달라 섞이기가 힘들더라. 몇 년 동안 이런 작업 하다가 최근에는 나 혼자 하게 되었다. 제일 쉬운 것이 역시 혼자 하는 것이고, 역할 분담이 되면 좋은데, 신문은 영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1시간 동안 내내 찍더니 1분 분량 내어 놓으려니, 필요 없는 작업을 한다는 등 노력한 대비 결과물이 없다는 등 시간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등,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신문사에서 펜과 영상, 사진이 모두 나간다면, 셋 중 하나가 선임이 되어 정리를 해 주면 쉽다.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하면 얘기가 쉽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영상에 좋은 것, 사진에 좋은 것, 펜이 좋은 것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이 나오게 된다.”

(D 팀장) “오프라인 신문 편집국과 온라인 편집국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원활하지 않다.”

(G 기자) “같은 편집국 내부에서도 텍스트 기사 작성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자 집단과 사진이나 영상을 다루는 기자 집단 간의 갈등도 결코 작지 않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은 바로 전통적인 ‘편집국 취재 인력’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충돌 혹은 차별의 양상이었다. 이는 편집국 내에서 이른바 ‘비(非) 취재 인력’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존중(respect)도 표시하지 않는, 저널리스트 직종의 오랜 관행에 해당한다.⁹⁾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문화적 관행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단일 매체’ 중심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문직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새로운 노동 관행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괴리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자기 인식으로 이러한 현실 변화에서의 괴리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반응은 결국 불평등한 고용 형태나 물질적 보상, 그리고 직업적 존중에 대한 합의의 결여 등에 대한 인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2)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기자 수첩’으로 대변되는, 기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화된 지식(personalized knowledge)’,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실천적(기사 작성의) 규범들을 지칭한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저널리스트 전문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구성하는 이 같은 전체 자체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우선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이 점차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량, 또한 보다 심층적인 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으로 변모해 간다는 전향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전자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 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기에는 인터넷 언론의 초창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개인들이 ‘멀티형’이 될 것을 주문받았던 경험이

9) 예컨대 “신문사의 주요 구성원을 기자직과 비 기자직으로 단순하게 직종에 따라 양분하면서, 대부분의 기자직은 비 기자직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비 기자직이 기자직에 대해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주은수, 2010, p. 16).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리고 후자는 인터넷 언론 혹은 ‘파워 블로거’라는 인터넷 정보 생산자들과의 경쟁을 거치면서, 저널리스트가 하루 빨리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던 기존 언론사 근무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반면 ‘B 소장’이나 ‘N 팀장’의 경우처럼 기존 언론사 내에서 멀티미디어 뉴스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큰 모순 없이 동시에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또한 각종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자 집단의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이른바 ‘네트워크 저널리즘(networked journalism)’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곧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이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다가능 기자’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인식 태도였다.

(N 팀장) “멀티미디어 시대의 기사는 텍스트 기사 작성에서 사진, 동영상, 편집 및 디자인에 걸친 모든 분야의 테크닉에 숙달되어 있는 ‘1인 5역’을 해야 한다.”

(B 소장)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스트는 기존의 신문사 저널리스트와는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스트는 이렇듯 단일한 표현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영상이나 텍스트 관련 편집 기술은 기본이다. 이러한 스킬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N 팀장) “기자 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브랜드화가 시급하다. 파워 블로거들을 영입해서라도 전문적인 기자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다. 여기서 기자 개개인이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H 기자) “기자의 역할은 오히려 G(Gate-keeper, 즉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필터링 역할), R(Recommendation, 그 중 뛰어난 뉴스 및 정보의 추천자), 그리고 C(Comments,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 그리고 N(Network, 이러한 뉴스 및 정보 네트워크의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문성의 내용에 대하여 표출된 새로운 인식은 저널리스트 재교육, 신규 인력 채용 방식, 그리고 업무의 ‘아웃소싱’에 이르는 전문직주의의 제도적 차원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첫째, 재교육에 관하여 이들은 비교적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영상 제작과 같은 테크닉 측면에 치우치는 것에 대단히 비판적이면서도,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취재 교육의 확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력들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자 개인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시스템 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이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력(개발자, 기획자, 아트 디자이너 등)이 조직 내에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신규 인력 채용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편집국에서 이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그것이 자신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J 기자) “그동안의 업무 성격상, 그들에게 영상 제작 능력을 교육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 기자들에 대한 영상 제작 교육은 그 자체로 별로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F 팀장) “기존 기자들의 재교육은 어렵다. 새로운 인력 투입만이 대안이다.”

(O 팀장) “현재와 같이 논술, 상식, 작문으로 이루어진 필기시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워싱턴 타임즈>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채용 조건 자체를 디지털 기술과 저널리즘 마인드로 바꾸어야 한다.”

(N 팀장)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사 인력 채용 방식을 현재의 공채 제도에서 과감히 특채 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아웃소싱에 대한—예상치 못한—전향적인 태도이다. 아웃소싱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의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력·자원 관리방법으로서,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도 새로운 조직 운영의 기법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¹⁰⁾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내 언론사들의 경영 관행이나 정서상의 이유로 아웃소싱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가 업무의 상당 영역을 또다시 아웃소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의 아웃소싱이 아닌, 기술 관련 직종 및 교육(직무 수련) 관련 영역에서 아웃소싱을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상 외로 넓은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었다.

(B 소장) “통합 뉴스를 할 경우 경영의 비용이 낮아지고, 개별적인 퍼포먼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서와 관행들은 여전하고, 이 때문에 통합 뉴스를 전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뉴스 팀을 분화시키고 외주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H 기자) “멀티미디어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기자의 재교육은 힘들다. 따라서 아예 이 영역을 아웃소싱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는 일종의 외주 제작 활성화에 해당한다. 신문의 미디어 면은 아예 미디어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어서 제작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사실은 그동안 전문직주의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졌던 사항들이 현실 속의 전문직 노동의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생각만큼 큰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도래 과정에서 오랫동안 전문직 정체성의 핵심으로 거론되었던 저널리즘의 객관성, 독립성에 대한 자기의식이 별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에 부합하는 직무(노동) 역량의 확립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대한 회의의 교차, 동시에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신규 진입 인력과의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오히려 전문직 노동에 대한 위기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 직업 정체성에서의 인식 혼란: 변화에 대한 정서적 동의와 반발

마지막으로 저널리스트 노동의 현장에서 전문직주의의 가치 변화에 결부된 직업적 미래 전망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 점은 환경의 변화, 전문직주의의 개념 변화 속에서

10) 아웃소싱은 많은 경우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담당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 영역—이른바 ‘비수익 기능 및 부문들’—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인 옵션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고 영업소, 사업, 출판, 외간, 뉴미디어(온라인 편집 등)가 그 주된 대상이다. 최근에는 언론사 내부의 이른바 ‘저가치 부문들’, 나아가 편집국의 사진부 및 교열 부문까지 점차 아웃소싱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주은수, 2010, 15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속도’, 그리고 이에 대한 ‘정서적 동의와 반발’이라는 차원으로 주로 표출되었다. 곧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개인의 미래 전망의 문제로서, 직업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하겠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선발, 육성, 인사 평가, 교육 훈련 및 자기계발 등의 새로운 인력관리 시스템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된다(주은수, 2010, 2쪽). 이것은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인터뷰에서 경영 차원의 변화에 대하여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다수는 조직 구조나 인력 운용, 뉴스 생산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에 대한 언론사들의 노력에 사실상 ‘낙제점’을 부여하였다. 오히려 여전히 “경쟁과 자급 부재”의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¹¹⁾.

이는 경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큰 위기의 징후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저널리스트들 스스로가 자신의 현재의 노동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보여주는 보수적인 태도일 것이다. 미래 전망에 입각한 변화의 수용은 먼저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만 노동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종사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개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 신문 산업의 미래,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는 개인적인 경험 및 언론사 내부에서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들은 스스로 변화의 필연성, 이에 따른 의식 전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 전망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국내 언론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보다 전면에 드러났다.

(A 팀장) “이런 사례들은 이제 ‘멀티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곤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 편이 낫다.”

(F 팀장)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를 거꾸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만 친숙하다. 지금 부장이나 데스크 급은 스마트폰도 못 쓴다. 메일 계정이 없는 사람, 여전히 원고지에 기사를 쓰는 사람, 사진 크기도 줄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데스크에서 취재 지시를 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동영상,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그분들은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젊은 기자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는 못한다.”

11) 지역신문 기자들에 대한 한 연구가 보여주듯, 이러한 경영 ‘위기’ 상황은 “[경쟁과 자기 발전의 자극은 과거] 잘 나가던 시절에나 있었다” 일이며 현재는 자신에게 할당된 지면을 채우는 것으로 족하다는 반응을 낳고 있다(한 선·이오현, 2010, 11쪽). 이는 광주·전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사례 연구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인 상황은 중앙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러한 정서적 거부감이나 우려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과도한 불확실성에의 노출,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큰 틀에서의 요인들과 직결되어 있다. 이들은 스스로 익숙한 환경에서 탈피하는 것에 대한 강한 회의 혹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우선 경제적인 요인들을 거론해볼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직책이 편집 데스크나 경영진의 위치에 좀 더 가까운 경우, 디지털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도 그것의 산업 비즈니스적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회의를 보다 전면적으로 표출하였다. 반대로 인터뷰 대상자가 입사 10년차 이내의 평기자일 경우, 디지털 저널리즘으로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업무 영역이나 노동 형태, 노동 강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이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법도 함께 피력하였다. 외국에서의 통합 뉴스룸의 사례들이 언론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 삭감이나 구조 조정으로 직접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국내 언론사들은 이러한 조직 변화가 자신의 ‘고용’ 자체에 큰 불안을 안겨 줄 것이라는 인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룸 혁신과 멀티미디어 저널리즘의 실현이 새로운 업무를 요구하는 반면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Singer, 2004a)도 외국보다는 낮은 편이었다(한국언론재단, 2009).

결국 직업 환경의 변화와 전문직 노동에 대한 인식이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중적인 미래 전망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곧 머리로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몸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¹²⁾. 지역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표현처럼 그것은 곧 “체념, 순응 그리고 최적화”의 형태—즉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겪으며 이직과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동시에, 급여에 대한 불만은 높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신문사 일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자긍심을 갖는 역설적이면서 상반되는 직업 세계”의 산물—라고 말할 수 있다(한선·이오현, 2010, 9쪽). 변화한 환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직업 정체성이 자신의 직업과 언론 환경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자괴감, 결국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같은 정서를 동반”(위의 글, 24쪽)하는 직업 전망에 기반한다는 사실은 해당 직종의 직업적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위기의 징후가 아닐 수 없다.

5. 결론 및 논의

이상으로 오늘날 저널리스트 직업 집단이 처한 새로운 노동 현실에서 전문직 노동의 개념 변화, 그리고 직업적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직 노동으로서의 성격 변화, 그리고 기자 집단의 미래 전망과 자기 정체성 문제는 저널리스트 노동의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개별 저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 직업 환경의 변화와 전문직 가치의 위기 상황은 자신의 경력과 미래 전망의 차원에서 또 다른 기회이자 여하튼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기도 한다(Singer, 2004b). 반면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회사 차원의 결정에 대한 분노, 항의 및 공격적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직장에 대한 애정은 물론 직업적 자의식과 같은 개인적인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Dupagne & Garrison, 2006).

저널리스트의 직업, 노동 및 자기 정체성을 둘러싼 질문들은 오랫동안 언론사에 고용된 저널리스트라는 현실적 조건과 공공성의 규범적 책무 사이의 상시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저널리스트의 전문직 노동의 여러 특성들은 오랜 역사적인 유산 속에 포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숙련 구조’의 결여, 전문직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채용 관행(공채 위주 선발), 보직과 경력관리 방식(보직 순환과 승진 구조의 문제),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 등에 따른 제약을 강하게 받아 왔다(장하용, 2004; 임영호 외, 2004; 임영호, 2007). 더 근본적으로는 ‘언론인’이라는 용어 속에 흔히 부가되는 전문직 규범이 직업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규정력을 가져 왔는지에 대한 논란 역시 크다 하겠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경우 객관성과 공공성의 전문직 가치는 ‘자사 이기주의’의 장벽 앞에서 지속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좌초되고 있다(양승목, 2007;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이처럼 현실적 제약들이 전문직주의의 구현을 위한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여와 결합되면서, 저널리스트 전문직주의의 제한적 실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서 전문직주의의 이념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또 전문직 노동으로서의 속성 변화가 자신의 직업적 현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각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로의 진입은 뉴스 생산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에 해당한다. 노동의 측면에서 그것은 전문직주의의 규범적 원칙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전문성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연 생산 체제 하의 저널리스트 노동이 노동 과정에서의 지위에 따라 ‘멀티스킬형 전문화’라는 새로운 전문성의 범주가 개인들에게 부과되었다. 작업장 내 역할 이동성이 본격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유연화된 노동 과정에 적합한 새로운 전문성 함양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저널리스트 집단이 오랫동안 받아들여 온 전문직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변화한 환경에 적극 대응한 것인지는 쉽지 않은 판단 과제이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야기되는 모순적인 경험들 속에서, 기존의 전문직주의 이념에 근거하는 직업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체념, 순응, 그리고 최적화”라는 미래 인식의 태도는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스트 직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정체성 혼란과 부적응성의 압축적인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우선, 몇 차례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 가치의 이념형에 기반을 둔 ‘규범적 모델’을 상정하지 않고, 저널리즘 직업 활동을 미디어 노동의 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저널리즘 연구에서 쉽사리 피하기 힘든 주제들—예컨대 뉴스 생산물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거리를 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 노동의 변화가 뉴스 생산물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측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저널리스트 집단의 노동 환경, 노동 과정, 직업의식 및 정체성의 전환기 양상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작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필연적으로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이 연구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일 것이다.

더불어, 매체 분화에 따른 저널리스트 직종의 분화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쇄 매체(신문, 잡지) 종사자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가지는 한계 역시 명백하다. 방송이나 인터넷 분야의 저널리스트 노동은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점은 자명하다. 방송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섭외도 연구 초기에 시도되었지만,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직업 집단 전체의 내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제약 요인이라 하겠다¹³⁾. 게다가 인쇄 매체 내에서도 인터뷰 대상자들의 직위나 직종에 따라 노동의 경험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역시 중요한 한계로 남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에 따른 노동 과정의 변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던 점 역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및 멀티미디어 환경의 도래는 그 자체로 뉴스 생산과 저널리스트 노동 과정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향후 저널리스트 노동 과정에 있어 뉴스 생산의 분업화 및 유연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경험자들의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험의 폭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 때문에 그 중 몇 가지 측면에 대한 고찰에 머물렀다 하겠다. 개별 사례들과 소수의 경험을 넘어서는 보다 일반론적인 차원의 규명, 그리고 그것이 한국 언론의 뉴스 콘텐츠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찰로 나아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하겠다. 이러한 점들 모두 추후의 연구 과제로 기약하고자 한다.

Ⅰ 참고문헌

- 강명구 (1993). 『한국언론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 나남.
- 김사승 (2008).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성재 (2005). 언론노동의 현실과 지역 언론인의 정체성.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105~140쪽.
- 김영옥·김광호 (2010). 『뉴스 미디어의 미래: 텔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진우 (2011). 유연성, 창의성, 불안정성: 미디어 노동 연구의 새로운 문제 설정. 『언론과 사회』, 19권 4호(2011년 겨울), 41~86쪽.
- 박진우·송현주 (2010).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양승목 (2007). 신뢰도 하락과 위기의 한국 언론. 임상원·김민환·양승목·이재경·임영호·윤영철. 『민주화 이후의 한국 언론』, 서울: 나남, 139~182쪽.
- 이정훈·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9~88쪽.
- 임봉수·이완수 (2011). 뉴스룸 통합이 저널리즘 수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53호, 29~52쪽.
- 임영호 (1998).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노동의 성격 변화. 『언론과 사회』, 22호, 6~39쪽.
- _____ (2007). 언론인의 직업 모델과 전문성 문제. 임상원·김민환·양승목·이재경·임영호·윤영철. 『민주화 이후의 한국 언론』, 서울: 나남, 233~281쪽.
- 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career)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61~89쪽.
- 장하용 (2004). 한국 언론인의 조직 내 승진요인에 관한 연구: 편집국과 보도국의 분석. 『한국방송학보』, 18권 2호, 36~67쪽.
- 정동우 (2010). 시장 지향적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수용 태도. 『한국언론정보학보』, 49호, 81~98쪽.

13) 단지, 인쇄 매체와 방송의 뉴스 생산 노동 과정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다면, 이들을 인터뷰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논의의 범위와 일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질 수는 있었다.

- 정승호·박선희 (2007).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활동 및 노동여건, 언론사 내 조직 위상의 변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비교 분석. 『언론정보연구』, 43권 2호, 37~68쪽.
- 주은수 (2010). 한국 신문산업의 조직 및 인사 혁신 방안: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2010년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2010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 _____ (2011). 한국 신문산업 임금실태 비교 분석: 기업공시사 중심으로. 2011년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1년 10월 15일, 연세대학교).
- 한국언론연구원 (1998). 『언론사 고용구조 변화와 실직언론인 대책』.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언론재단 (2009). 『한국의 언론인 2009: 제11회 기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한국 신문의 미래 전략: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선·이오현 (2010). 지역신문 기자의 작업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8권 4호, 2~36쪽.
- Aldridge, M. (1998). The Tentative Hell-Raisers: Identity and Mythology in Contemporary UK Press Journalism. *Media, Culture & Society*, 20(1), 109~128.
- Aldridge, M. & Evetts, J. (2003). Rethinking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The Case of Journ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4), 547~564.
- Beam, R. (2006). Organizational Goals and Prioritie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US Journalists. *Journalism Quarterly*, 83(1), 169~185.
- Boczkowski, P. (2004). *Digitizing the News: Innovation in Online Newspaper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reed, W. (1955). Social Control in the Newsroom: A Functional Analysis. *Social Forces*, 33(4), 326~355.
- Casey, R. & Allen, C. (2004). Social Housing Managers and the Performance Ethos: Toward a “Professional Project of the Self”.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8(2), 395~412.
- Cottle, S. & Ashton, M. (1999). From BBC Newsroom to BBC Newscentre: On Changing Technology and Journalist Practices.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y*, 5(3), 22~43.
- Dahlgren, P. (1996). Media Logic in Cyberspace: Repositioning Journalism and Its Public, *Javnost-the Public*, Vol. 3(3), 59~72.
- Deuze, M. (2004). What is Multimedia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5(2), 139~152.
- _____, (2007). *Media Work*. Cambridge: Polity.
- Dickinson, R. (2007). Accomplishing Journalism: Towards a Revived Sociology of a Media Occupation. *Cultural Sociology*, 1(2), 189~208.
- Durkheim, E. (1950). *Leçons de sociologie: Physique des moeurs et du droit*. 권기돈 (역). (1998). 『직업 윤리와 시민 도덕』. 서울: 새물결.
- Erdal, I. J. (2009). Cross-Media (Re)-Production Cultures.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15(2), 215~231.
- Esser, F. (1998). Editorial Structures and Work Principles in British and German Newsroom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3(4), 375~405.
- Fedler, F. & Pennington, R. (2003). Employee-Owned Dailies: The Triumph of Economic Self-Interest over Journalistic Ideals. *International Journal on Media Management*, 5(4), 262~274.
- Fournier, V. (1999). The Appeal to ‘Professionalism’ as a Disciplinary Mechanism. *The Sociological Review*, 47(2), 280~307.

- Freidson, E.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박호진 (역). (2007).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서울: 아카넷.
- Gall, G. (2000). New Technology, the Labour Process and Employment Relations in the Provincial Newspaper Industry. *New Technology, Work and Employment*, 15(2), 94~107.
- Gans, H. (2003). *Democracy and the News*. 남재일 (역). (2007). 『저널리즘, 민주주의에 약인가 독인가』. 서울: 강.
- Hardt, H. (1990). Newworkers, Technology, and Journalism Histor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346~365.
- Hesmondhalgh, D. & Baker, S. (2011). *Creative Labour: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4). *The Future of Work and 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Media, Culture, Graphical Sector*. Genèv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Lemieux, C. (ed.). (2010). *La subjectivité journalistique: Onze leçons sur le rôle de l'individualité dans la production de l'information*. Paris: Éd. de l'EHESS.
- Louw, E. (2001). *The Media and Cultural Production*. London: Sage.
- Neveu, E. (2001). *Sociologie du journalisme*. Paris: La Découverte.
- Quandt, T. & Singer, J. B. (2009). Convergence and Cross-Platform Content Production,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30~144.
- Sc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New York: W. W. Norton.
- Silcock, B. W. & Keith, S. (2006). Translating the Tower of Babel: Issues of Definition, Language, and Culture in Converged Newsrooms. *Journalism Studies*, 7(4), August 2006, 610~627.
- Singer, J. B. (2004a). More than Ink-Stained Wretches: The Resocialization of Print Journalists in Converged Newsroom. *Journalism & Communication Quarterly*, 81(4), 838~856.
- _____ (2004b). Strange Bedfellows: Diffusion of Convergence in Four News Organizations. *Journalism Studies*, 5(1), 3~18.
- Soloski, J. (1989). News Reporting and Professionalism: Some Constraints on the Reporting of the News. *Media, Culture & Society*. 11(2), 207~228.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 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서울: 나남.
- Ursell, G. (2000). Television Production: Issues of Exploitation, Commodification and Subjectivity in UK Television Labour Markets. *Media, Culture & Society*, 22(6), 805~825.
- _____ . (2001). Dumbing Down or Shaping Up?: New Technologies, New Media, New Journalism. *Journalism*, 2(2), 175~196.
- Watson, T. (2009). Work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The Need for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tudy of Continuity and Change. *Sociology*, 43(5), 861~877.
- Wilensky, H. L. (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137~158.

(투고일자: 2011. 12. 1, 수정일자: 2012. 2. 1, 게재확정일자: 2012. 2. 3)

ABSTRACT

Changing Understanding on the Journalist Professionalism: A Sense of Crisis about the Journalists' Professional Labour and Professional Vision

Jin-Woo Park* · Hyun-Joo Song**

Much research has been documented on the topic of journalist labour, including process of news produc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urnalist ethics. Relatively little interest is given to the recent changes in journalist labor caused by the digital convergence in contemporary news industry, however. This study explore the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formation of professional works, practices and identities. For the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17 Korean journalist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rviewed journalists expressed both expectations and worries concerning the changes of news production environmen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new environments could conflict with the old professional culture and confuse the professional identities. Third, the confusion of professional identities was concerned with adaptability, emotional consent or resistance to the changes.

Keywords: Journalist Work (Labour), Digital Convergence,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Consciousness, Professional Identity

* Research Fellow, Korea Press Foundation, Research Team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Hallym University